

도약

신성우의 LEET
〈추리논증〉 기초편

Part 4. 논증 분석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논증 분석	1	8				

- LEET 전체 문항 중 1/4 정도
- 인문철학 소재 문항의 대부분. 구별되는 견해(혹은 논증)가 주로 제시
- 숨겨진 원리를 찾아 문제를 풀게 하거나
지문 내용이 참일 때, 참 혹은 거짓이 되는 진술을 고르게 하거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지문 내용과 양립가능한지 묻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숨은 전제(가정)이 무엇인지 묻거나
가능성과 존재를 묻는 등의 문제로 구성 → 논리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을 경우 유리
(기본강의)

Part 4. 논증 분석 유형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글을 전부 읽고 푸는 것이 아니다. 추론적 사고를 하라.’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을 뿐이다.

선지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원리를 생각하고 지문에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라.’

→ 결국 문맥을 통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즉 조건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

논증 분석 예제 1 (정답 3)

5.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성립된다. 계약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계약법은 당사자의 자율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최대한 관철시키고 강화하는 규범 체계라야 한다. 당사자의 자율은 어느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A: 자율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보다는 자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보호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는 '원래' 존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의도했던 의사가 다르게 표시되어 상대방이 그 표시대로 믿었다더라도 표시보다는 당사자 일방이 의도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후견적 관여는 자율의 행사가 오히려 자율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당화된다.

B: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율이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자율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절댓값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효용(+)-의 절댓값보다 작으면, 자율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된다. 자율을 제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국가나 사회 포함)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율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C: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율이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효용을 평가할 때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자율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절댓값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효용(+)-의 절댓값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가 등이 보상해주어야 자율을 제한할 수 있다. 보상된 만큼 당사자의 효용은 증가된 것으로 본다.

- ① A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의도했던 의사가 ㉠임에도 실수로 ㉡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로 인식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를 ㉠로 본다.
- ② B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율을 정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은 항상 양(+)-이다.
- ③ C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이 음(-)-인 경우가 발생한다.
- ④ A와 C 중 어느 것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이 양(+)-이 되더라도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 ⑤ X국 규제기본법이 "사회 전체에 창출되는 효용의 총합이 자율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B보다는 C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 자율이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 효용이 + \rightarrow 제한이 정당화

정당화된 제한 \rightarrow 항상 효용이 +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 ‘A해야 B할 수 있다.’ / ‘A인 경우에만 B한다.’

$B \rightarrow A$

- ‘~인 경우가 존재한다.’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연역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라. 결국 모두 정보도출(원리적용)의 파생일 뿐이다.’
‘귀류를 항상 풀이에 적용하라.’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는 도출될 수 없다.’

A의 부정값이 도출되었어야 함.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4 - ***플레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A에 동의한다는 A가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A가 반드시 거짓인 것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를 부정한다는 A가 반드시 거짓인 것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A와 양립 가능하면 된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B이다. 따라서 C이다.’

A&B → C가 숨은전제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인과론은 필요 최소한으로 알아두고 문제 풀이에만 적용하자.’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가 아니라 B라고 가정하더라도’
바뀐 가정인 B를 대입해서 확인하자
- ‘A라 전제한다.’
A를 부정했을 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
- A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옴
: 모순을 통한 정보도출 / 구조꼴을 이해하고 대입해서 확인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인과론은 필요 최소한으로 알아두고 문제 풀이에만 적용하자.’

논증 분석 예제 5 (정답 5)

19.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명제는 수학, 윤리 등 어느 하나의 논 의 주제에만 관한 것이며 어떤 논 의 주제에 관한 것도 아닌 명제는 없다. 또한 명제는 그 명제의 논 의 주제에 상대적으로만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래서 “명제 p는 참이다.”, “명제 q는 거짓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명제 p는 수학적-참이다.”, “명제 q는 윤리적-거짓이다.” 등과 같이 말해야 옳다. 명제는 그 명제의 논 의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참이 아니다. 즉 윤리에 관한 명제 p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이가 원리’에 의하면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어떤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그 명제는 거짓이고, 그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명제는 참이다. 나의 견해는 얼핏 이가 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명제가 수학적-참이면서 윤리적-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수학적-참이면서 수학적-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지, 수학적-참이면서 윤리적-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을: 그렇지 않다. 너의 견해와 이가 원리를 모두 받아들이면 모순이 발생한다. “살인은 나쁘다.”라는 명제를 r라고 하자. r는 윤리에 관한 명제이므로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너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참 거짓은 논 의 주제에 상대적이므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 또한 어떤 특정한 논 의 주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살인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참 거짓 문제가 수학적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에,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가 윤리의 논 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는 윤리적-참이다. 그런데 너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명제는 하나의 논 의 주제에만 속하므로, 윤리적-참인 명제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이가 원리에 따르면 모든 명제 p에 대해서, p가 참이 아니라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p는 참이다. 그러므로 r는 수학적-참이다. 이는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우리의 가정과 충돌한다.

<보 기>

- ㄱ. 논 의 주제 s에 관한 명제 p에 대해서, p가 s-참이 아니라면 p가 s-거짓이라는 것을 갑은 부정하지 않는다.
- ㄴ. “p는 참이 아니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에서 앞의 ‘참’과 뒤의 ‘참’이 같은 논 의 주제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 ㄷ.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가 윤리의 논 의 주제가 아닌 예술의 논 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을의 결론은 똑같이 도출된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라면 B라는 것을 갑은 부정하지 않는다.’
갑의 주장은 $A \rightarrow B$ 와 양립가능하다. 즉 갑의 주장에 ‘ $A \& \sim B$ ’가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
- ‘~일 수 없다.가 약화한다.’
~일 수 있다.
- ‘A가 아니라 B라고 가정하더라도’ (2)
바뀐 가정인 B를 대입해서 확인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알 수 있다.가 약화한다.’
알 수 없다.
- 패러프레이징과 함축. : 정확하게 보인다.
- 특칭의 부정 = 전칭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보기의 전제와 결론을 모두 확인하자.'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모순은 부정문을 의미한다.'

논증 분석 예제 7 (정답 2)

2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술비평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비평가는 작품의 구조적 특징이나 재현적·표현적 성질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평가의 근거가 되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다음 <비평>을 놓고 갑과 을이 견해를 개진한다.

<비평>

- 평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훌륭하다.
- 이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실물 같다.

갑: <비평>의 평가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누군가는 “만약 예술작품 W가 실물 같다면, W는 훌륭하다.”라는 기준이 <비평>에 적용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위홀의 <브릴로 상자>에는 적용될 수 없다. <브릴로 상자>가 실제 세계 상자와 동일한 외관을 지녔지만, 그 때문에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 W에 대해서 속성 F가 W에 귀속된다면, W는 훌륭하다.”라는 비평의 기준은 확립될 수 없다.

을: 모든 예술작품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범주에서 그것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작품의 훌륭함을 보장하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 즉 “범주 C에 속하는 예술작품 W에 대해서 속성 F가 C의 목적에 기여한다면, F는 W를 훌륭하게 만든다.”를 찾아낼 수 있다. <비평>의 평가는 “르네상스 조각에 속하는 예술작품 W에 대해, ‘실물 같음’이라는 속성이 르네상스 조각의 목적에 기여하는 한, ‘실물 같음’은 W를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 기>

- ㄱ. 갑에 따르면, 비평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도 일반화될 수 없으므로 평가는 언제나 개별 작품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ㄴ. 회화 작품을 평가할 때, “통일성 있는 예술작품은 모두 훌륭하므로 이 작품은 훌륭하다.”라는 평가는 을이 주장하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 ㄷ. “극의 훌륭함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속성인 ‘개연성 없는 플롯’이 부조리극의 목적에는 기여하더라도, 부조리극 비평의 일반화된 기준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갑의 견해와는 모순되지 않지만, 을의 견해와는 모순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에 대해 B하는 한 C하다.

부정 :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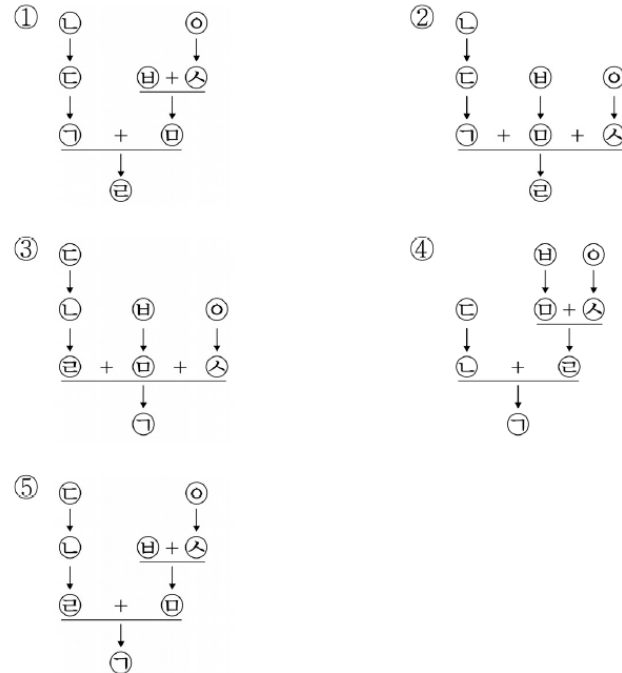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논증구조 분석의 핵심은 술어간 비교다.’

논증 분석 예제 8 (정답 4)

25. 다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윤리 규범이나 가치의 필연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 규범이나 가치는 사회적, 역사적 우연성을 반영한다. ㉢ 우리가 지금과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실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고 다른 규범 및 가치 체계를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떠한 윤리 규범도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사실에서만 비롯할 것일 수 없으며, 모든 가치는 우리의 평가적 관점에 의존한다. ㉤ 윤리 규범은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이성의 사실'이 아니다. ㉥ 우리가 이성의 법칙으로부터 순수 논리학과 수학의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으로 여기는 도덕 법칙을 마찬가지로 연역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가치의 원천은 특정 행위자의 평가적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A를 가정한디의 경우 A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라.’

‘비교급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강압과 기만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 질서있는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를 주목해야 해.